

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(제1차)

1.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14. 1. 9(목) 16:00~17:20
- 장 소 : 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
- 참 석 : 위원 9명 전원 참석
 - 외부전문가 및 동문 : 김재식(위원장), 양호경(부위원장), 조춘 위원
 - 학교대표 :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재정전략실장
 - 학생대표 : 주무열, 정주희, 고창원 위원

2. 회의 안건

-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 심의

3. 회의 내용

- 안건 설명
 -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
 - 발표자 : 예산과장
- 회의 내용
 - 등심위 위원 9명 중 8명 참석에 따라 회의 개최
 - 학생처장 16:50분 입장
 - 서울대학교 학칙 제113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
 -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
 - 학생측: 전년과 달리 책정(안)에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와 예산(안)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부족예산이 산출된 근거는?
 - 대학측: 책정(안)에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함임. 세입·세출 추계작업이 현재 마무리 중이고 국회 예산의결의 지연으로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었음.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자료제공이 가능함

- 학생측: 책정(안) 내용 중 2014년도에 발전기금 전입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 요구
- 대학측: 저금리에 따른 발전기금 수익 악화와 목적을 지정한 기부가 대부분이었던 관계로 2014년도 발전기금 재량 가용예산이 부족해졌다는 보고를 받았음
- 학생측: 2012년 장학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건 등록금 인하와 연관이 있지 것이 아닌지 설명 요구
- 대학측: 장학재단에 자체 장학금 확충계획을 제출했던 것으로 자체 및 교외 장학금이 모두 포함된 상황임. 목표치 과다 책정이 원인이었음
- 대학측: 내부 장학금 편성은 등록금 추계액의 12.7%를 배정하였음. 현금 지급 장학금을 제외하고 등록금 감면 결과만 보았을 때는 학부 8.6%, 대학원 12.6% 정도임
- 학생측: 예산서상 장학금 증감이 있었는지 확인 요구
 - 〈장학금 지원 현황을 수치로 정리하여 차기 회의에 제출하기로 함〉
- 대학측: 2013년도에 등록금이 인상되면 전액 장학금으로 활용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더 혜택을 주고자 제안한바 있음
- 학생측: 등록금을 인상해서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동의 받기 어려움
- 학생측: 대학 알리미를 확인한바 일부 대학은 0.25%인하가 아닌 경우도 있었음
- 대학측: 전 대학 전년대비 고지서상 0.25% 인하되었음
- 학생측: 등록금 추산 방법 및 추산한 금액보다 실제 수입액에 더 많을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설명 요구
- 대학측: 등록금 추계는 전년도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학제변경 및 규정학기 초과자 등을 반영하여 산정 함. 2012년도는 추계액 보다 수입이 부족했고, 2013년도 역시 수입결손이 예상됨
- 학생측: 등록금 0.25%인하에 따른 결손액 질의

- 대학측: 0.25% 인하 분 4억원과 추계액 대비 수입 결손액 2억원 총 6억원의 결손이 예산됨
- 학생측: 이월금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 요구
 <법인회계 이월금 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함>

4. 심의 결과

- 등심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
 - 위 원 장 : 김재식 위원
 - 부위원장 : 양호경 위원
-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2014. 1.21(화)까지 등록금 책정 심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함
- 학생대표가 요구한 자료를 학교 측에서 조속히 제공키로 함
 - 서면으로 제출한 요구자료 목록(별첨)
 - 장학금 운영 관련 자료
 - 이월예산 운영 관련 자료
- 차기회의 결정 : 2014. 1. 16.(목) 17:00